메트로 2014년 12월 22일 월요일 제3121호 www.metroseoul.co.kr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 촉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파로 화상경마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의 전격 개장 강행 움직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마사회가 거짓광고를 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 형사 소송도 전혀 취하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마장 지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단통법 때문에…" 활기 잃은 이통시장

법 시행 이후 판매점 15% 문닫아…하향곡선 예고
분리공시제 도입, 보조금상한 폐지 등 목소리 커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 통신장애로 인한 560만명의 피해, 이통3사 45일간의 영업정지.

올 한해 이동통신시장은 예년에 비해 악재가 잇따랐다. 하지만 내년에도 시장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최대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초반 보조금 규모 축소로 통신시장이 얼어붙었지만 2개월여가 지나면서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내년 이동시장이 예년처럼 가입자 유치 붐이 일어나는 등 시장 활성화가 일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시장상황이 포화상태인 점도 있지만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일시적으로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공격적인 영업행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향후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 현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쟁사와 차별화된 요금전략을 내놓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단통법 이후 장기적으로 휴대전화 출고가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출고가 인하가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 대부분이 변덕 제품이거나 15개월 이상 지난 제품들"이라며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출고가가 인하되더라도 5만~10만원 수준에 불과한 데 막상 보조금은 월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해야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 과거에 비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이들도 줄어들고 휴대전화 제조사, 이통사, 유통점(대리점·판매점) 등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시장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이미 지난 10월까지 전국 3만여 곳에 달하던 휴대전화 판매점(대리점 제외)은 단통법 시행 이후 4500곳(15%) 이상이 문을 닫았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잘못된 단통법으로 인해 결국 판매점과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비자 차별 때문이라면 해당 요인의 유통구조만 철저히 통제하고 보완하면 되는데 왜 굳이 고객에게 많이 주겠다는 보조금도 못주게 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업계만 유독 유통점들의 통제가 심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휴대전화 하나 파는데 눈치보며 감시당하고 늘 죄인이 불법행위를 하는 기분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은 단통법 개정이나 폐지를 통해 변화시켜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이처럼 단통법의 악영향이 지속되자 개선책 찾기에 나서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월 들어 잇따라 단통법 이후 시장상황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우상호·문병호·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나서서 단통법 시행 60일을 돌아보고 통신비 인하 해법을 찾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분리공시제 도입과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기도 했다.

앞서 단통법 개선 필요에 대한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지난 5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기기변경과 신규가입자에 대한 제반비용이 다르게 소요되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게 됐다"면서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듯 한데 정부에서 이를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단통법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내년 이동시장의 판가름 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이로 볼 때 내년 시장 전망은 어전히 흐림"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대안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사회공헌 특별판 배포 메트로신문은 연말을 맞아 기업들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담은 특별판을 제작, 지난 19일 수도권 주요 지하철역과 기업 밀집지역에 배포했다.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유가하락에 가스비만 인하 전망·교통요금·상하수도료 등 인상 대기

내년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몇년 간 공공요금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최근 저물가 추세로 물가에 대한 부담이 덜하자 해당기관들이 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스요금은 5% 안팎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내년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지 3년이 되가는 데다 지하철은 연간 적자가 5000억원, 시내버스는 3000억원에 달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상시기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벌이고 있는 대중교통 환승할인 적자 부담을 둘러싼 소송전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인천지하철 기본요금을 현재 1050원에서 19%인 2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요금도 현재 1100원에서 200~3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도시철도공사도 1100원인 철도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수도 요금도 부산시와 대구시 등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내년 초부터 인상이 시작된다.

부산시는 수돗물 생산원가를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수돗물 요금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연차별로 수돗물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도 수돗물 요금을 내년 1월부터 2년간 8.7~10% 정도 인상할 예정이다.

/이진영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가업상속 공제 5천만원 재추진

증여세 공제확대 조율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뜻밖에 부결됐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재추진된다. 야당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던 가업상속 공제의 경우 일부 요건을 강화한다. 직계 존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늘리는 정부안은 유지한다.

21일 정부 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법안 처리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점을 감안, 개정안의 핵심인 가업상속 공제의 확대는 유지하되 사전·사후관리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했다. 공제적용 대상 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늘리는 방안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업의 정의는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애초 여야 간사가 합의했던 대로 '7년 이상'으로 바꾸고, 업종·고용규모 변경과 지분 처분이 제한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가업상속 공제 확대와 더불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 경감 방안의 경우 정부안대로 아들딸이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할 때의 세금 공제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이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해 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8일 기재위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만찬에 초청,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주영기자

막내 봉사 업어주는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1일 강원도 인제 육군 전방부대를 방문, 부대 막내인 이등병을 업어주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전용기에 미사일 방어장비

군 당국이 공군 1호기인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을 최근 갱신하면서 2016년까지 전용기에 미사일 방어장비를 장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전용기 임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0월 대한항공과 보잉 747-400 5년 임차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며 "기존 전용기와 같은 기종이나 새롭게 개조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전용기에는 자체 미사일 방어장비가 없었지만 새 전용기에는 유도탄접근경보기(MAWS)와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 등의 미사일 방어장비도 2016년까지 장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도탄접근경보기는 감지기와 레이더를 이용해 발사된 적 유도탄을 탐지하는 장비이고,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는 적이 쏜 적외선 유도형 미사일들을 교란하는 역할을 한다.

2020년까지 사용하게 될 대통령 전용기 임차 비용은 1400여억원이고, 미사일 방어장비 장착에는 300여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주영기자

뉴스&뉴스

베니스위원회,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요청

●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하라고 헌법재판소 측에 요청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번역하는대로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헌재 결정이 선고되기 전부터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을 주시했다. 정당해산심판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아울러 베니스위원회는 결정문이 완성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헬기추락 순직 강원소방관 5명 국가유공자

● 지난 7월 세월호사고 수습 지원 후 복귀하다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5명이 국가유공자로 최근 확정됐다.

21일 국민안전처와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고(故) 정성철(52) 소방령 등 강원도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소속 순직 소방관 5명이 이달초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심역을 통과했다.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2.4% 이내로

●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2.4%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를 2.4% 이하 수준으로 정한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는 올해 3.8%보다 1.4% 포인트 하락했다.

원내대표 주례회동…분수령 될 듯

비선 의혹에 통진당 해산 변수 만나…파행 우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여야가 대치중인 가운데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메가톤급 변수를 만나면서 12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정상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말 임시국회의 순항과 파국 여부는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최루통첩을 한 23일 주례회동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주에 정상화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여야가 이미 합의한 29일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합의부터 파기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연내 구성하기로 한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등도 같은 처지다.

이처럼 국회 현면이 산적해 있지만 임시국회는 순항은 안갯속이다.

비선 의혹을 둘러싼 대치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진당 해산으로 이념논쟁 양상까지 더해지면서 정국 경색이 되레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개회 시 출제한 지난 17일부터 비선의혹을 다루기 위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며 국회일정을 부분적으로 거부하며 통진당 해산이 비선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정부 여당의 국면전환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통진당 해산 문제가 정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민생국회에 매진해야 할 때라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비선의혹에 대한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창무기자 cyclon@[illegible]

해킹 한수원…수사 나섰다

고리 2호기 월성 1호기 내부 문서 도면 유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도면과 매뉴얼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문서가 또 인터넷에 공개됐다. 지난 15일부터 4번째 유출이다.

이번 한수원 문서 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사용자는 21일 새벽 1시 30분께 트위터에 또다시 한수원을 조롱하는 글과 함께 4개의 압축파일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는 고리 2호기와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문서, 원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MCNP5와 BURN4 매뉴얼 등이다. 고리 2호기는 공조기와 냉각시스템 도면, 월성 1호기는 밸브 도면이다.

한수원은 지난 19일 추가 자료가 공개되자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핵심기술이 아닌 일반적 기술자료여서 원전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면서 "사이버공격 발생에 대비해 종합대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21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등 주요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시점과 관련해 유출 경로를 따라가며 범인 추적에 나섰다.

합수단은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IP의 위치가 지방 모처로 파악됨에 따라 이날 현장에 수사관을 급파했다.

아울러 자료가 유출된 고리 월성 원전에도 수사관을 보냈다.

이는 유출범 추적이 원점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IP 등 범인이 최근 남긴 흔적을 쫓아가는 것과 원전 내 자료가 당초 어떤 방식으로 외부에 나갔고 이후에는 어떤 경로로 유통될 수 있는지를 따지며 경우의 수 를 좁혀가는 것이다.

한수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유출 자료는 월성 1호기 감속재 계통과 배관설치 도면, 고리 1·2호기 배관계측 도면에 쓰인 범례, 고리 1·2호기 보조건물 냉각수 계통 도면, 월성 1호기 주제어실 내 급수 복수계통 패널 사진 등이다.

/유주영기자 boa@metroseoul.co.kr

현물 자산시장 성장 개인금고 판매 늘어 최근 현물 자산 시장이 규격이 커지면서 개인 금고시장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저금리 추세,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시작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최근 유가 폭락과 러시아 경제위기라는 대외적인 요인까지 겹치자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4가 한 금고판매점. /연합뉴스

서울 일반고 운영비 최대 1억2천

고입 배정방법도 개선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자 현재 매년 학교당 평균 5000만원씩 지원되는 학교운영비를 내년부터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늘린다. 또 학생 배정 방법을 개선해 일반고 간 학생들의 학력 격차도 완화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진중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일반고 전성시대 기반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일반고 교육정상화 기반 구축 ▲학생 맞춤형 진로집중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방법 혁신 ▲대학 진학을 위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다양화 ▲직업교육 지원 강화 ▲학교 부적응 학생 위한 대안교육 기회 확대 ▲일반고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등을 추진한다.

학교운영비는 학생이 희망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교의 여건과 규모,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활동 운영 계획에 따라 최대 1억2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유지하면서 학생 분포와 통학거리 등 배정 요소를 분석해 현행 배정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일반고 학생 배정 방법을 개선한다.

/유주영기자

송어 낚시 삼매경에~ 21일 개막 후 첫 휴일을 맞아 겨울철 명물 송어축제가 열린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는 많은 인파가 찾아 얼음 송어 낚시를 즐기는 등 겨울의 낭만을 만끽하고 있다. 평창 송어축제는 2015년 2월 8일까지 51일간 열린다. /연합뉴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꿈꾸지만…

확률 20%…올해도 구름만 잔뜩

해마다 12월만 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지만, 실제로는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지 않은 때가 훨씬 많았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196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50년간 공식적으로 서울에 눈이 온 것으로 기록된 크리스마스는 10번에 불과했고 적설량도 많지 않았다.

1965년과 1967년, 1980년 각각 적설량 0.1㎝, 3.6㎝, 1.3㎝의 눈이 내린 데 이어 1985년에 0.1㎝의 눈이 찔끔 내렸다. 1990년 2.1㎝의 눈이 내린 것을 제외하고는 한동안 성탄절 눈 소식이 없었다. 이후 10년 만인 2000년 1.8㎝의 눈이 내렸고 2년 후인 2002년 1.2㎝의 눈이 내렸다.

최근 10년에도 눈 내린 크리스마스는 2005년(0.7㎝), 2009년(0.4㎝), 2012년(1.5㎝) 등 세 번뿐이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올해에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오는 25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해마다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날씨에 대한 관심이나 문의가 많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눈이 온 때는 별로 없었다"며 "눈이 오더라도 잠시뿐이거나 흩날리는 때가 잦아 쌓인 적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유주영기자

서울여대, 정보보호 교육생 모집

서울여대 정보보호 영재교육원(www.kern.or.kr)에서는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교육생을 모집한다.

2014년 8월 교육부가 설립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은 올바른 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정보보호 전문가인 '화이트 해커'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으로 양성하는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영재교육원 전체 교육과정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 달인 1월에는 제1기 주니어 화이트 해커가 배출될 예정이고, 이번 2015학년도에는 제2기 '주니어 화이트 해커 후보'를 모집하는 것이다.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은 전국에 권역별로 선정되어 있는데 1권역(수도권, 강원)에는 서울여자대학교, 2권역(충청권)에는 공주대학교, 3권역(영남권)에는 대구대학교, 4권역(호남권, 제주)에는 목포대학교가 맡고 있다.

수준별 5개 교육과정을 15명 규모 6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정보보호전공 교수진은 물론 안랩, 라온시큐어 등 정보보호 전문업체들도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30일간의 모집공고 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하순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유주영기자

<교수신문 선정 올해의 사자성어 — 교과서적으로 옳고 그름 바꾼다>

올해의 사자성어 '지록위마'

교수들이 올 한해를 되돌아보는 사자성어로 '지록위마(指鹿爲馬)'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교수신문은 지난 8~17일 전국의 교수 7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7.8%(201명)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지록위마'를 선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부른다는 뜻으로 고의적으로 옳고 그름을 섞고 바꾼다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정치적으로는 윗사람을 농락하여 자신이 권세를 휘두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록위마는 사기(史記) 진시황본기에 나오는 사자성어다. 진시황이 죽고 환관 조고가 어린 호해를 황제로 세워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뒤 호해에게 사슴을 바치며 "좋은 말 한 마리를 바칩니다"고 거짓말한 것에서 유래했다.

'한리청을 무시하고 억지로 적용한다'는 뜻의 '삭족적리(削足適履)'가 23.5%(170명)의 지지를 얻어 2위에, '지극한 아픔에 마음이 있는데 시간은 많지 않고 갈 길은 멀다'는 의미의 '지통재심(至痛在心)'은 교수 20.3%(147명)의 선택을 받아 3위에, '세상에 이런 참혹한 일은 없다'는 뜻의 '참불인노(慘不忍睹)'가 20.2%(146명)의 지지로 4위를 기록했다.

/이경우기자

안면윤곽술 받은 여대생 숨져 수사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여대생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4시간에 걸쳐 턱을 깎는 수술을 받은 대학생 정모(21·여)씨가 회복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숨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으로부터 진료 기록 등을 받아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정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2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주영기자

김정은, 내년 러시아 방문?

metro Russia

전문가들은 회의적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 등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내년 5월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학 학자 알렉산드르 보론조프는 "김정은이 승전 기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내년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언론은 북한에 대해 불확실한 정보를 많이 보도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믿기 힘들다.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해도 승전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현지학자 세르게이 마르케로프는 "김정은이 승전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이는 미중과의 관계가 답보 상태에 빠지자 러시아를 통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시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르케로프는 "세계 각국의 참여 한 여에 관계로 둘러 쌓인 외교 문제가 2015년에 어떻게 변화될 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며 "북한 측은 다만 승전 기념 행사에 다른 정상들과 함께 참석하는 형태가 아닌 김정은의 단독 방문을 기대하고 있어 실제 방문이 성사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세가나 루촉쉬씨 기자·정리=조선미기자

60대 아내 거리서 숨져

metro HongKong

영하 24도…남편 통곡

최근 중국 랴오닝성의 기온이 영하 24도까지 내려간 가운데 60대 여성이 거리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 여성은 선허구에서 약을 사서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쓰러졌다. 행인들의 신고로 곧바로 경찰이 도착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다.

뒤이어 도착한 남편 허(69)모 씨는 시체를 부둥켜안고 통곡했다. 두 시간 동안이나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의 몸은 완전히 얼었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허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자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장갑과 장고 앉을 스티로폼 상자를 가져왔다.

한 행인이 "날이 너무 춥다.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며 그를 재촉했다. 그러나 그는 고개만 끄덕일 뿐 입으로는 "괜찮아. 조금 더 옆에서 있을래. 앞으로는 기회가 없잖아"라고 중얼거렸다.

허씨는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며 "오늘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나가더니 이렇게 됐다"고 말해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그가 자리를 지킨 지 두 시간쯤 지나서 아들이 도착했다. 그제야 허씨는 몸을 일으켰다. 그는 차를 타기 전 고개를 숙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의사 행세하며 수표 훔쳐

metro France

20대 여성이 의사 행세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기 혐의로 붙잡힌 이 여성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프랑스 리옹 밀집지역의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의사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의자는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가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수표 묶음을 훔쳤다. 경찰에 따르면 심지어 적어도 수표 65장이 쓰였으며 총 금액은 6892 유로(약 932만원)정도에 달한다.

용의자는 병원 내 CCTV로 붙잡혔으며 3명의 환자가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파비르 블랙상드르 브셀 기자·정리=김주리 인턴기자

테러지원국 재지정 임박

美 소나 해킹 배후 북한 대응책 고심·경제 제재도 고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될 위기에 놓였다. 더 나아가 초고강도 경제 제재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FP 등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사이버 해킹 사건과 관련한 대응책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공식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이는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조치를 6년 만에 재검토하는 것이다. 실제로 재지정되면 북·미 관계에 상당히 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과 절차, 국내외적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작업을 거쳐 이를 금융제재를 비롯한 다른 대응 옵션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사이버 보복공격과 고강도 금융제재, 한·미 군사력 증강 등도 검토 중인 알려졌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다시 포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4개국이다. 이중 쿠바는 미국이 국교정상화 추진에 따라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소니에 사이버 공격을 한 해킹단체 '평화의 수호자'(GOP)가 이번 사건을 수사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조롱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CNN 방송에 따르면 GOP는 파일 공유 웹사이트인 '페이스트빈'에 "FBI의 수사 결과는 너무 대단해서 우리가 한 일을 두 눈으로 직접 본 것 같다"면서 "FBI의 성공을 축하하며 FBI는 세계에서 최고"라고 조롱했다.

/마국흥기자 kmkim@metroseoul.co.kr

산타도 셀카 '찰칵'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주민들이 퍼레이드 도중 휴대전화로 셀카 자기 촬영을 찍고 있다. /모이의 연합뉴스

"쿠바 공산주의는 그대로"

카스트로, 미국과 국교정상화에도 체제는 고수

미국과 쿠바가 반세기만에 국교정상화를 발표해 양국 관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이런 가운데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쿠바의 공산주의 체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카스트로 의장은 20일(현지시간) 인민권력국가회의(의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가 미국에 정치 체제를 바꾸라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미국도 우리의 체제를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쿠바가 힘들게 지켜온 가치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카스트로 의장은 "미국이 쿠바에 대한 무역·금융거래 제한 등 금수조치를 끝내야 한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행정권을 발동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미국의 금수조치 중 대부분은 법률에 명시돼 있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당수의 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의회의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 오바마 대통령은 광범위한 행정권 발동으로 금수조치 해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카스트로 의장은 내년 4월 파나마에서 열리는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해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장례식 이후 카스트로 의장과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조선미기자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20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연설 도중 두 손을 맞잡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행복을 나눕니다

"수능 당락비율 30%…소신 지원을"

"출제위원에 교사 비중 늘리고 장기적으론 문제은행 검토"

사람이야기

■ 이범 교육평론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여러가지 면에서 일대 혼란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물수능'이란 말이 연일 언론의 화두에 올랐고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었다. 고1 자녀를 둔 인천거주 학부모 정모씨([illegible])는 "수능 정책이 자주 바뀌어 힘들다. 막내가 고2 올라가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잘 하는 아이들이 재수를 하게 돼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볼 게 아니냐"며 걱정했다.

이에 교육평론가 이범(45)씨를 만나 이번 수능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또한 그가 제시하는 수능 지원 방안도 알아본다.

◆올해 이른바 '물수능'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MB정부 이후 쉬운 수능 기조가 이어졌다. EBS 교재 반영 비율이 70%에 이르는 정책을 쓰게 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과목별 만점자 비율이 1%가 되게 하라는게 정부의 정책이었다. 이것이 MB 정부의 수능정책 기조였다. 이는 곧 수능 사교육 시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에 사교육 대기업 메가스터디 주가가 떨어지는 등 부수적 효과가 있었다. 쉬운 수능은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었던 것이다.

◆올해 수능은 사상 처음으로 수능 오류가 두 과목에서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특정 과목이 쉽게 출제된 것은 사실이다. 이과 수학B가 가장 쉬웠고, 영어가 너무 쉽게 출제됐다. 수학이 쉽게 출제되었던 것은 의외로 기록될 만하다. 올해 수능을 복기해 보자면 이 정도 충격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사과를 하는 등 대혼란이 있었다

김성훈 교육과정평가원장이 물러나는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나는 황우여 장관을 흔들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 이번 정권에서 교육정책이 성공해 수능 정책이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모두 다 한심해 할 장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현 수능 정책의 어떤 점을 개선하고 싶은지

나는 새정치민주연합 연면석 의원이 이끌고 있는 수능개선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 특위에서는 교사들이 대학 입시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학교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영집로 성균관대 교수 등을 참여시켜 수능개선특위 토론회를 지난 8일 열었다.

수능 특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교사가 출제를 주도하고 교수가 이를 감수하는 새로운 방식의 수능 출제를 장기적으로는 문제은행방식의 출제를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수험생들에게 조언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론의 잇단 '물수능' 보도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정부에도, 대학에도, 학부모는 물론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능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비중은 30%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분위기에 호도되지 말고 소신대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조언이다.

/유주영기자 boa@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 son@

'안전보건 실무 길잡이' 4종 보급

자동차 정비소나 목재류 제조, 택배서비스업 종사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쉽게 안전보건 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전가이드가 개발됐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50인 미만의 사업장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자를 두기 어려운 업종과 재해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작업별 재해예방과 안전작업방법을 제공하는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4종'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안전보건 실무 길잡이 4종'은 자동차·모터사이클 수리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업, 택배·퀵서비스업으로 사업주나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가 쉽게 이해하고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안전보건 실무길잡이'는 공단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e-안전보건 실무길잡이(http://guide.kosha.or.kr/guide/guide_main.do)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간단한 클릭만으로 업종별 독점작업에 대한 자세한 안전대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실무 길잡이 4종'을 1만부 제작해 산업현장 가슴지원시 제공하는 한편, 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한 'e-안전보건 실무길잡이'를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유주영기자 boa@

포스코 인니 폭발사고 부상자 끝내 사망

지난 15일(현지시간) 포스코 크라카타우(Posco Krakatau) 고로 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병원 치료 중이던 현지인 노동자 1명이 끝내 숨졌다.

21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카르타 페르타미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유다 아리타마(20)씨가 20일 오전 사망했다. 포스코 크라카타우 대변인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리타마씨는 사고 당시 전신의 90% 화상을 입고 며칠간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크라카타우는 동남아시아 철강 시장 공략을 위해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철강회사 크라카타우스틸과 합작해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부 반튼주 찔레곤에 건설한 고로제철소다. 15일 오후 1시께 폭발 사고가 일어나 작업중이던 현지 근로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김건우기자

삼성SDS 연말 맞아 '행복산타' 변신

전국 소년원에 20년째 지원…'스마트 브리지' 대표 활동 중 하나

삼성SDS의 사회공헌 활동인 '행복산타' 프로그램이 연말을 맞아 전국 소년원생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시고 있다.

삼성SDS는 20년간 지속적으로 전국 소년원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 20년간 370대의 PC 기증과 함께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2만3000여명의 소년원생에게 IT교육은 물론 형과 누나, 때로는 아빠와 엄마가 되고 있다.

이런 현장 활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맞아 전국 10개 소년원을 직접 방문해 1000여명의 원생들에게 선물과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카드를 전달하는 '행복산타' 프로그램이다.

삼성SDS는 매년 12월 사내 인트라넷에 구축한 '행복산타 참여' 시스템을 통해 소년원생 한 명, 한 명이 올린 원하는 선물과 사연을 보고 직원들이 선택해 그 학생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면 행복산타가 전국 소년원생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IT 소외계층과 과도하게 노출된 계층을 사회적으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자'는 의미로 삼성SDS가 올해 초 새롭게 선보인 사회공헌 비전 '스마트 브리지(Smart Bridge)'의 대표 활동 중 하나다.

삼성SDS 직원들이 연말을 맞아 '행복산타'로 변신, 전국 소년원을 방문해 선물과 직접 작성한 카드를 전달했다. /삼성SDS 제공

삼성SDS는 1993년 한 사업부에서 안양소년원에 30대의 컴퓨터를 기증하고 소년원생들에게 워드와 엑셀 등 간단한 IT교육을 매주 실시하며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전국 각 지에 사업장이 있는 특성을 살려 서울, 대구, 부산, 제주도 등 우리나라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소년원을 지원했다. 특히 회사업의 특성을 살린 IT관련 지원도 실시해 삼성SDS만의 차별화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약 4500명의 학생들에게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대학교에 입학하는 우수 소년원생들을 매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와 함께 소년원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정보화 격차를 느끼지 않고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전국 소년원 대표 학생들이 IT 활용능력을 겨루는 '푸르미 [teen Top 경진대회]'도 매년 개최한다.

이처럼 청소년 시절을 소년원에서 보내는 학생들의 IT능력 배양은 물론 건강한 청소년 문화와 정서적 안정을 높여주기 위해 IT관련 교육 및 경진대회부터 장학금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20년간 지원한 것이다.

정석목 삼성SDS 인사팀 상무는 "올해도 우리가 방문한 후 어떤 감동적인 후일담이 있을지 기다려진다"며 "이들의 앞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제인기자 ljy0403@

'제조로봇' '자동화 생산라인' 쏜다

삼성 창조경제혁신센터에 300억 지원··현대차는 경영컨설팅 제공

재계가 창조경제혁신센터 가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펼쳐지는 혁신 거점 구축 프로젝트다.

대구, 대전,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소돼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삼성그룹은 지난 17일 구미에 있는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노력에 적극 동참했다.

삼성이 보유한 우수한 제조기술과 신사업 추진 역량을 활용해 경북지역의 노후 산업단지를 '창조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것이 이번 협력의 가장 큰 목표다.

삼성은 향후 5년간 경북가 조성하는 3개 펀드 600억원 중 300억원을 지원한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9일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모를 들고 현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717㎡의 공간에 '팩토리랩' '퓨처랩' '컬처랩'의 3개의 연구소도 구성할 예정이다.

'팩토리랩'은 사물인터넷 기반 자동화 생산 라인과 제조 로봇을 설치해 제조의 미래를 보여 주는 전시 기능, 제조 인력 교육, 컨설팅 기능 등을 담당한다.

'퓨처랩'은 경상북도가 선정한 7대 신사업 시범과제 중 의료기기용 부품 제조라인용 다관절로봇, 지과용 3차원 영상진단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센서 통합 검사 계측기, 조정밀 금형기술의 5개 과제를 수행하고 벤처 창업을 지원한다.

'컬처랩'은 전통문화와 농업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경북의 문화 유산을 디지털 컨텐츠로 변환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정 회장은 이날 광주 내방동기아자 광주공장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사업 계획과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건립 현장도 직접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내년 초 출범 예정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성 창업팀과 중소 벤처 기업들이 사무 공간과 경영 컨설팅을 지원받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정 회장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부 운영 프로그램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포항 포스텍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협약식에 참여했다.

박대통령은 "산업단지를 생산만 하던 곳에서 벗어나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창조산업단지'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대기업 중심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구조로 탈바꿈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역설했다.

/이승훈기자 pen@metroseoul.co.kr

market index <19일>

코스피	코스닥
1929.98 (+32.48)	535.51 (+7.59)

금리	환율
2.16 (변동없음)	1095.50 (+0.80)

LG전자 '트롬 스타일러' 출시 서울 여의도 LG 트윈빌딩에서 모델이 트롬 스타일러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지역개발 '맞춤형'으로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주도, 지역맞춤형 지역정책을 강화한 2015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해 19일 지자체 설명회를 열었다.

지역개발지원법은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법률이다.

2015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지난 9월 제지정된 ▲ 성장촉진지역'(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70개 시·군)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 지역 전문가, 지자체(시·군)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주민 밀착형 소규모 창조융합사업에 지원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성장촉진지역 지원은 개발계획에 따라 지역의 부족한 도로 등 주로 SOC를 확충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했으나, 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역 특화,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소규모 융합사업(H/W+S/W)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또 국토부는 지역개발제도의 통합 및 사업구역 지정권한 시·도 이양 등으로 지역주도의 지역개발 추진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 중심의 ▲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향후 10년간의 신규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진행된다.

/김두탁기자 kdt@

장기 불황 속 '만원 의류' 인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2014 제1회 중소상공인 행복나눔 대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1만원 상당의 저가 의류를 구매하기 위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LG전자, '세탁기 파손' 삼성전자 임직원 맞고소

LG전자가 세탁기 파손 과 관련해 삼성전자 임직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LG전자는 "증거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들의 소속회사인 삼성전자는 지난 9월 14일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 LG전자 임직원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손괴했다는 요지의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명예훼손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LG전자는 "삼성전자가 LG전자 측에 의해 손괴됐다며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 연물이 훼손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삼성전자가 증거물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출했고 제출된 세탁기가 동일한 물건인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동일한 세탁기라면 증거물로 제출되기 이전에 훼손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훼손, 즉 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조된 증거물을 사용해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증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 11일 매장 측으로부터 증거물을 넘겨받은 삼성전자는 증거물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출했으며 이는 증거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고소인들(삼성전자 임직원)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닉했다고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에 진열된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 임원진이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성운기자 ysw@

UAE서 1억배럴 원유 발견

석유공사, 2017년말 생산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이 UAE 아부다비에 에어리어1 광구 할리바 구조에서 일산 2만배럴 가량의 원유 산출시험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발견잠재자원량은 1억배럴 이상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할리바 구조 인근에서도 추가 구조가 확인돼 원유 지질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등과 사업성을 평가한 뒤 경제적으로 가장 유망한 구조를 우선 개발해 2017년말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 평가정 3공을 추가로 시추해 설계와 개발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석유공사는 2012년 3월 GS에너지와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해 UAE 아부다비 3개 광구 개발에 착수했다. ADNOC가 60% 지분을, 한국컨소시엄(석유공사 30+GS에너지 10)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 m@

로또복권 제631회

1等 당첨번호						2等보너스숫자
10	23	31	35	43	44	1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978,433,375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71,584,745
3등	5개 숫자 일치	1,341,592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백화점길(5)(소공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
독자센터 02)721-9891
2005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56

은행권, 고객 찾아가는 '태블릿 브랜치' 도입

주요 은행들이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한 방문영업 서비스인 '태블릿 브랜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나섰다.

'태블릿 브랜치'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직원이 고객이 있는 장소에 방문, 태블릿 PC를 활용해 금융상담을 진행하고, 고객이 신청서를 태블릿 PC에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은행 입장에서도 종이를 쓰지 않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태블릿 PC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금융상품 상담과 신규 가입이 가능한 '태블릿 브랜치'를 선보인다.

부산은행은 1차 오픈에 맞춰 부산지역내 15개 영업점을 선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영업점은 상가, 병원 등 집주권 방문 영업, 원거리 거래처의 급여계좌 및 전자금융 신규 등에 태블릿 브랜치를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태블릿 브랜치에서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해 부산은행 전 영업점에서 태블릿 브랜치를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월 은행권 최초로 '태블릿 브랜치'를 도입했다.

운영 점포도 초반 5개에서 현재 15개로 확대됐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예금 신규, 전자금융 신청, 신용대출 약정 등 은행의 주요 업무다. 향후 신용카드 신청, 담보대출 신청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업무 시간 중 지점 방문이 어려웠던 자영업자나 회사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도 지난 2011년 8월 은행권 최초로 휴대용 전용단말기 '포터블 IBK'를 출시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학교, 군부대, 병원, 상가 등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에게 휴대용 은행 단말을 통해 영업점 못지않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은 내년 초 '태블릿 브랜치' 시범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태블릿 브랜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김민지기자 minji@

"요람부터 무덤까지 책임져요"

카드사, 육아·결혼·장례 등 이색 서비스 제공

미혼 고객을 위해 미팅을 주선하고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며, 장례준비까지 지원한다.

상조회사나 웨딩업체의 이야기가 아니다.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카드사들이 마련한 이색 서비스들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육아와 결혼, 일상 생활과 장례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 부분에 걸쳐 고객 서비스를 지원하는 셈이다.

삼성카드는 웨딩전문회사 가연, 듀오와 손잡고 12월의 미팅파티를 준비했다.

연말과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30대 미혼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육아를 위한 할인과 정보 교류의 장도 마련돼있다. 롯데카드 육아클럽이 바로 그것.

롯데신용카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육아클럽은 가입 6개월간 롯데마트와 와스토로운, 제로투세븐, 아가방 등에서 육아용품 구매시 결제 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또 목표금액 달성시 선택한 추가 이용금액의 1%를 롯데포인트로 다시 받을 수 있다. 특히 롯데카드의 해당클럽서비스 가입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캐시백 한도를 2배 더 높여준다.

개인이 보유한 자동차를 팔아주기도 한다.

신한카드는 중고차 전문 기업 중고차닷컴(주)과 함께 개인 차량을 가장 좋은 가격에 안심하고 팔 수 있는 맞춤 외장 서비스 '팝카옥션'을 내놨다.

이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차량 전문 평가사가 방문해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직접 평가하며, 평가사의 스마트폰을 통해 팝카옥션 CCC(Customer Consulting Center)로 전송돼 입찰할 수 있다.

고객은 상담 신청과 최종 판매 여부 결정만 직접 하면 되며, 일반적인 차량 매매비용 외 경매와 차량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무료로 진행된다.

상을 당하거나 장례를 준비 중인 고객을 위한 상조서비스도 있다.

KB국민카드는 고객의 슬픔을 함께하는 'KB마음*드림 장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 1월말까지 KB국민카드 고객은 장례식장과 제수용품, 종합병원등 장례 관련 업종에서 건당 150만원 이상 결제시 신용카드 1% 청구할인과 체크카드 0.5%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전화 한 통으로 추가 한도 부여와 장례 지도사 파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례컨설팅 'The Memory'(이하 더 메모리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고객은 장례 준비부터 안치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무료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는 더 메모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기본 한도 외에 추가 한도를 최고 1500만원까지 부여한다. 추가 한도는 장례식장과 묘지, 종합병원, 개인병원, 응급실운영병원 등 장례 시 비용 지불이 필요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기존에 카드사 서비스가 웨딩이나 여행, 쇼핑과 관련한 이벤트를 제공하는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비슷한 내용의 행사보다 고객 편의와 기호에 맞는 다양한 이색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metroseoul.co.kr

우리은행, 시네마정기예금 상의원 출시 우리은행은 영화제작사 드와오 픽쳐스와 공동 마케팅 협약을 맺고 관객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시네마정기예금 상의원'을 출시했다. 이 예금은 1년제 정기 예금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2.20%에 영화 관객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경우 연 2.25%, 200만명을 돌파하는 경우 연 2.30%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판매된다. /우리은행 제공

AIG손보, 체질개선 시장 공략

김종열 부사장·최인규 실장 영입 조직 강화

올해 숨고르기를 했던 AIG손해보험이 최근 김종열(사진) 부사장과 최인규 실장(이사급)을 영입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국내 보험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AIG손보는 지난 1일 김 부사장을 상품개발 신사업부 총괄로 선임했다.

김 부사장은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HSBC, 하나HSBC생명(현 하나생명) 등에서 주요 임원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 아이오와대학에서 보험계리학 석사학위를 받고, 지난 2003년 40대 임원으로 대한생명에 발탁됐다.

이후 그는 9년간 상품개발팀 상무로 역임하면서 플러스찬스 연금보험, 싱글라이프보험, 셀러리케어보험 등 생명보험협회의 배타적사용권을 7개를 획득하는데 공헌을 했다.

이 중 5개가 연금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이었다.

AIG손보는 김 부사장을 통해 저축성이 가미된 장기 하이브리드형 상품 개발 등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하나기자 khn@

외환銀, 제주 부동산 개발에 중국 자금 유치

외환은행은 지난 16일 중국 투자자로부터 제주도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자금 1억1000만 위안을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투자 건은 한화 193억원 규모로 중국투자자의 환리스크 관리와 환전비용 최소화 요구를 반영한 외환은행의 투자 컨설팅을 통해 이뤄졌다.

중국 투자자의 주요 투자처인 제주지역에 대해 위안화 직접투자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인 투자자의 투자모델로 활용돼 투자유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등 위안화 직거래를 위한 주요 인프라가 활발히 구축되고 있고, 위안화 투자의 계속적인 증가가 이어지면 직거래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 10월 영종도지역에 첫 위안화 직접투자(FDI)거래를 이끈 바 있으며 중국투자 유치 본격화를 위해 제주도와 송도에 FDI센터를 열었다.

주진호 외환은행 마케팅전략그룹 부행장은 "정부의 위안화 허브 구축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위안화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위안화 무역거래와 자본거래 수요창출에 지속적으로 은행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투자 자금 중 한화 100억 상당의 위안화는 연내에 추가로 송금될 예정이다. /백아란기자

보건복지부 h well 국민건강보험

"포괄간호서비스"

곁에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간병부담은 줄이고, 입원서비스의 질은 높여주는
국민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

- 간호인력을 늘리고, 병실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병원의 간호 인력이 환자를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입니다.
- **2015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종합병원 및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병원 및 검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가폭락에 원자재 투자자들 울상

10억 이상 89개 펀드 연초 대비 평균 −13.87% 수익률 드러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 5년래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원자재 투자자들도 울상을 짓게 됐다. 원자재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에 머물고 원자재 파생결합증권(DLS)은 원금 손실 우려가 높아졌다.

21일 펀드평가사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으로 설정액 10억원 이상의 원자재펀드 89개는 연초 대비 평균 −13.8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금에 투자하는 펀드 2개를 제외하곤 모두 마이너스 성과를 냈다. 최근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원유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 일부는 −60%에 육박하는 손실을 볼 정도로 부진했다.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DLS 투자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약 120종의 원유 DLS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했다.

60 달러선 붕괴를 겪은 유가가 50달러 초반까지 더 내려간다면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하는 DLS 수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국제 원자재가격의 대표적인 지표인 CRB지수는 최근 5년4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글로벌 원자재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고 미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었다. 중국 경제가 소비 위주의 구조로 전환한 것도 수요 감소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에너지·금속·농산물 등 19개 주요 상품 선물가격을 반영한 CRB지수는 지난 12일 243.75로 2009년 7월 말 243.5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말 308.22와 비교해도 하반기 들어 크게 하락했다.

국제 원자재 종목의 주가를 좇는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악세를 면치 못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올해 상반기 47.50에 육박하던 '글로벌커머디티이쿼티' ETF는 19일(현지시간) 38.49로 40선 밑으로 밀려났다.

시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추가 하락을 점친다.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금리 상승 환경은 금에 악재로 작용하며 농산물·금속 등 원자재 생산국들의 최근 환율 변동도 공급량을 늘리는 압박 요인이다.

특히 원유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현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은 최근 유가 40 달러선 하락까지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 원유 공급을 조절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가격 안정을 위해 감산하기보다 현 수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겠다며 사실상 과잉공급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반면 수요 측면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네 차례에 걸쳐 내년 글로벌 원유 수요 예상치를 하향조정했다.

국내외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강유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내년 상반기 유가 하락 리스크가 높다"고 말했다.

웰스파고의 세미르 사무나 전략담당은 "지금으로서 원자재 전망은 부정적"이라며 "원자재 값이 더 하락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자재값 약세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석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 유가 급락에 따른 혜택 기대감보다 글로벌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해질 우려가 더 높다"며 "글로벌 원자재 수요 둔화가 우려되면서 국내 산업재의 에너지 업종의 이익 전망치 하향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신한카드 '2015년 사업전략회의'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이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신한카드 제공

신한카드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인천 무의도 홈플러스 연수원에서 2015년 사업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위성호 사장을 비롯한 임부서장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날 신한카드는 선도자(First Mover)와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의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지위를 고수하고 신시장을 선도키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위 사장은 스티브 잡스(Steve Jobs)의 'Creativity is connecting things(창의력은 연결하는 능력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임부서장들에게 창의와 소통을 강조했다.

/백아란기자 alive@

사회적 공익 실천 58명에 '생명보험 의인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보재단)은 19일 서울 광화문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생보재단은 순직경찰 32명과 일반시민 26명을 사회적의인으로 선정하고 생명보험의인상과 시상금 2억원을 전달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LIG손보, 대학생 '오메불방 콘서트'

LIG손해보험은 지난 18일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오! 메리 불타는 방학'(이하 '오메불방')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LIG손해보험 미니클래스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각종 자격증 획득과 대외활동, 취업준비로 방학 다운 방학을 보내기 힘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시인 하상욱 씨와 그룹 메이트의 멤버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정준일 씨가 콘서트의 게스트로 나왔다.

박주현 LIG손보 커뮤니케이션 담당 상무는 "고객의 소소한 일상을 보듬는 데 보험업의 본질이 있다는 생각에서 건강, 육아, 운전 등 다양한 일상 속 관심사를 다룬 미니클래스를 열어오고 있다"며 "새해에도 더 풍성하고 알찬 방식들로 고객들과 꾸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IG손해보험이 개최한 '오! 메리 불타는 방학'(이하 '오메불방')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게스트로 참여한 하상욱 시인이 강연을 하고 있다. /LIG손해보험 제공

한편 지난해 9월 여성 운전자를 위한 '빵빵! 베스트 드라이버가 간다'라는 주제로 처음 시작된 미니클래스 행사는 '자궁 건강', '셀프 웨딩', '척추 건강', '휴 드레싱' 등 소소한 일상생활에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총 8회에 걸쳐 열렸다.

/김형석기자 khs@

짠순이 주부 경제학

음식물쓰레기 적게 만드는 방법

주부들에게 음식물쓰레기는 골칫거리 중 하나다.

음식물쓰레기를 조금만 방치해도 집안 곳곳에서 악취가 풍기고 벌레가 꼬인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28%는 음식물쓰레기다. 음식물쓰레기도 다이어트가 필요한 때다. 기왕이면 환경도 아끼면서 음식물쓰레기도 현명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음식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다. 식단을 일주일 단위로 미리 짜면 남는 음식을 줄일 수 있다. 음식 재료를 구입한 뒤 냉장고에 그냥 보관하면 물기가 고여 쉽게 상한다. 재료를 사면 바로바로 손질해둬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조리하는 게 좋다. 냄비나 그릇 크기를 줄이는 것도 음식물쓰레기를 없애는 방법 중 하나다. 조리 용기가 크면 음식의 양도 자연히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각 가정에 맞는 용량으로 골라서 사용하자.

매일 먹는 채소와 과일은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원인이 된다. 껍질부터 뿌리까지 버리는 부분에는 물기가 닿지 않게 하고 한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손질 후 남은 파뿌리는 깨끗이 씻어 냉동실에 보관하면 좋다. 파뿌리를 수시로 달여 먹으면 감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음식은 싱겁게 조리하고, 먹을 만큼만 덜어 추가적으로 양념을 넣어 먹는다. 국물을 떠는 멸치나 새우는 믹서기에 갈아 분말로 사용하면 좋다.

또 밥통에 남아있는 밥이나 반찬, 찌개 등은 지퍼백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한다. 냉동된 밥과 반찬은 전자레인지에 해동한 후 먹으며 찌개나 국 종류는 냄비에 다시 끓여 먹으면 된다.

과일 껍질은 말린 다음, 손으로 적당히 부수면 부피를 30% 정도 줄일 수 있다. 특히 오렌지나 레몬 껍질 등은 말려두면 방향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자투리 식재료는 일줄살을 모아뒀다가 볶음밥, 카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마트의 세일상품이나 1+1 상품을 오래 두고 먹을 생각에 사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먹을 만큼만 사는 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김민지기자 minji@

신재생에너지, 유가 직격탄?

태양광·전지업체들 주가 하락…장기적으론 회복 전망

유가폭락이 이어지며 고유가 시대에 각광받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21일 에너지업계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선까지 무너지면서 고유가 시대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던 태양광·전기차·풍력·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지난 11월 감산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유가가 급락하자 세계 최대 풍력발전기 공급업체인 덴마크 베스타스 주가는 11%가량 하락했다. 중국 최대 태양전지 패널기업인 잉리 그린에너지 주가 역시 곤두박질 쳤다. 미국 전기차 메이커인 테슬라모터스도 주가가 20% 가까이 추락했다.

국내의 경우 자동차 전지·ESS(전력저장장치) 사업의 선두주자인 LG화학은 2주새 주가가 10% 가까이 빠졌다. 태양광업체인 OCI의 주가도 3개월새 30% 이상 빠지며 직격탄을 맞았다. 한화와 솔라원과 큐셀의 합병을 선언하고 세계 최대 태양광 업체로 도약한 한화케미칼의 주가도 하락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전기 생산에 원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0.7%로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은 단기적일 뿐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우리 정부는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의 대체 에너지 사업으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1%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술개발·보급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세계 각국도 환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남성우 한화솔라원 대표이사는 "유가하락이 태양광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태양광은 발전원이고 석유는 교통수단의 에너지원이자 주요 소비자가 석유화학산업이어서 상관관계가 약하다"고 말했다.

LG화학 역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수주한 물량만도 16조원이 넘기 때문에 유가하락을 이유로 사업규모를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도 "저유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대형 SUV 차량 판매기 증가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판매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삼성 응답망 S펜 체험행사 삼성전자가 지난 11일 갤럭시 노트 엣지의 응답망 S펜 체험행사를 했다. /삼성전자 제공

내년 大 '긴축경영' 中企 '현상유지'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현재의 경기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긴축경영'을, 중소기업은 '현상유지' 정책을 경영기조로 잡았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영배)가 22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최고 경영자 경제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대기업은 지난해보다 '긴축경영' 기조로 응답한 기업이 증가(2014년 39.6%→2015년 51.4%)한 반면 중소기업은 감소(2014년 42.5%→2015년 31.5%)했다. 전체적으로는 '현상유지'(42.6%)로 설정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긴축경영'(38.0%), '확대경영'(19.4%)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는 장기형 불황으로 평가한 기업은 66.7%로 작년(43.5%)보다 크게 증가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러시아 금융위기 후폭풍 대비를

뉴스룸에서
김하성
<부국장 금융시장부장>

러시아 경제가 심상치 않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국가들의 주가 경제제재와 유가 급락으로 루블화 폭락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기준금리를 10.5%에서 17%로 대폭 인상하고 70억달러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 등 극약 처방에도 진정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연말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경제는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약 2년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불안한 형국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러시아발 경제위기가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경제에 먹구름이 몰려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어르면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앞서 불거진 이번 러시아 사태로 신흥국 시장의 자금 이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5년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치고 터키, 인도네시아의 통화가치도 급락,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對)러시아 무역 규모가 전체의 2%에 불과해 당장 불안해 할 정도는 아니지만 위기가 신흥국으로 확산되면 한국 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자 자동차, 정유 등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인도·브라질 등 12개 주요 신흥국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113억3000만 달러에 달한다. 금융권 전체 대외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1%인 점을 감안할 때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한국은행 외환보유고도 지난 7월이후 4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러시아가 4190억 달러의 외화를 보유하고도 디폴트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경제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위기가 몰려 오기전에 외환유동성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우리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 해소와 취약산업을 중심으로 구조개혁 등 전체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한다. 예상치 못한 러시아 디폴트 위기가 몰고 올 후폭풍에 대비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

박 대통령, 청와대부터 쇄신해야

정론탁설
유병팔
<언론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2년을 지나 집권 3년차에 들어선다. '제2 한강의 기적'을 꿈꾸며 지난 2년간 창조경제를 선창하고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무기력하게 허비한 시간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실망감을 보여주듯이 전직 대통령에 비해 지지율이 너무 낮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 지지율이 52%, 이명박 전 대통령도 44%에 달했으나 박 대통령은 취임 후 40%대를 밑도는 39%까지 내려갔다. 아는 철옹성 같았던 보수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연금개혁, 노시개혁, 규제개혁 등 3대개혁을 통해 오랜 적폐를 털어내자고 강조했다. 방향설정에는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은 소모적인 국정운영이 되었다. 갖가지 묘책을 동원해도 경제가 쉽사리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남북관계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지만 가시적인 진척은 없다.

이제 박 대통령은 초심을 잃지 말고 국정운영에 중대한 변화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청와대 시스템부터 반듯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위기관리능력에 많은 회의가 따르고 월권행위가 숨김없이 드러났다. 그러다 보니 '비선' 또는 '실세'라는 말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와 국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진용을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조직의 시스템 정비와 함께 대통령 스스로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를 골라 기용해 청와대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 사실 지금 참모들은 2년 가까이 여왕을 섬이 에너지도 한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인재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수첩인사를 떠나 개방적으로 모아야 한다.

특히 지난 세월호 참사로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내각'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하는 점을 숙고해야 한다. 내각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범국민적 총리를 탄생시켜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정의 난맥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큰 그릇'을 찾는데 조금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내려가고 있는지를 절감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책이 나온다. 뭐니 뭐니 해도 집권초반부터 불통의 이미지를 심어왔고 부실인사와 지각인사가 뒤따르면서 대통령에 화살이 던져지고 있음을 직감해야 한다. 지금 박 대통령은 집권 2기에 이미 접어들었고 새해 1년이 성공하는 대통령의 갈림길이 된다.

포토프리즘

함께하는 자선냄비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사관들이 종을 흔들며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 구세군 자선냄비본부는 올해 모금액 목표를 65억원으로 잡고 전국 300여곳에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이케아 광명점 첫날부터 '불만'

기자수첩
김수정
<생활유통부 기자>

각종 부정 이슈로 말 많았던 이케아가 지난 18일 드디어 광명에 국내 첫 매장을 오픈했다. 오픈 전부터 국내 소비자들은 글로벌 가구공룡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던 만큼 개장 첫날 입장 제한을 할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그런데 이날부터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미흡했던 준비로 인해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쇼핑 후기에서 "입구에서 전 구역을 돌고 빠르면 3시간 만에 드디어 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한다"며 미로 같은 동선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오픈에 앞서 해당 매장을 방문했던 기자도 천장에 달린 안내판을 보지 않고서는 출구를 찾기 어려웠다. 더욱이 사람이 많이 몰려있다면 이 안내판마저 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1층에서 계산을 하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찾는 것도 고된 일이었다.

이케아코리아 측은 개점 전부터 '셀프'를 강조했지만 막상 쇼핑을 해보면 소비자 스스로 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돈을 받고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는 이용할 수도 없었다. 배송과 조립을 맡은 협력 업체의 시스템 문제와 인력 부족으로 조립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케아측은 "해당 서비스를 오픈할 때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용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제대로 한 적도 없다.

뒤늦게 이케아코리아 측은 개선을 위해 인력을 보충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회사 측의 서비스 정신이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있는 그대로의 사람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서점에 새로운 코너가 생겼다. 일명 '컬러링 북'으로 불리는 색칠놀이 책이 팔리는 장소다. 컬러링 책은 이미 그려진 밑그림 위에 색칠 정도를 하도록 고안했다. 다른 놀이와 달리 어른들을 위한 놀이에서 출발된 필링도구이기도 하다. 색을 칠하는 동안 무의식은 자유로워지고, 색에서 오는 다양한 감정으로 인해 즐거워진다는 게 사용자들의 주장이다. 서점가에서 꽤 긴 시간 동안 팔리는 컬러링북을 보면 반짝하고 말 현상은 아닌 것 같다. 미술적 재능이란 게 아주 소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그래서 그런 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많은 것도 색칠놀이 유행에 한 몫을 하는 듯 하다.

다이어리는 한 철 장사가 아니라 한 달 장사를 해야 할 품목이다. 12월과 생사를 같이 하는 다이어리는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처럼 스마트해졌다. 시간을 일, 주, 월 단위로 잘 쓸 수 있도록 구성됐고, 약속에서부터 자신의 수필까지 다양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려졌다. 2015년 다이어리는 조금 다르게 디자인된 게 많다. 많은 것을 담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구획된 페이지보다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어찌보면 사용자에게 더 많은 내용을 손글씨로 남기라고 유도하는 것 같다. 다이어리와 동의어로 생각됐던 브랜드의 제품보다 이름 모를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제품이 인기를 끄는 건 이유가 있다.

SNS 사용자 사이에서는 타인의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고 담소를 즐기는 모임이 인기를 얻고 있다. 집주인이 음식을 차려서 초대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 음식을 준비해 오기도 한다. 그들이 지키는 한 가지 원칙은 구매한 음식을 내놓지 않는 것이다. 자신만의 레시피를 공유하는 걸 넘어서 맛을 나누자는 모임의 취지가 돋보인다. 또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배우는 자리로도 그만이다. 이런 모임을 40~50대가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 20~30대가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화제가 되지 싶다.

우리는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네트워크가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생활에 젖어 있다. 전기가 나가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게 문제다. 그래서일까. 요즘은 사람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색감, 손 글씨, 맛 등은 오감에 의한 감성과 밀접하다. 복제 불가능한 아름다움에 대한 재구성의 시대를 맞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오는 쳇바퀴처럼 기술의 진보와 반복의 어느 지점에는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 정답인가 보다.

/인디케이션블루(www.ib.co.kr) 대표

볼보 V40 vs 골프 GTD, 당신의 선택은?

V40, 세련된 디자인과 강렬한 성능 '일품' GTD는 가벼운 차체와 낮은 가격이 매력

임의택의 차차차

■볼보 V40 D4 R-디자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점점 큰 차를 찾는다. 좀 더 넉넉한 실내와 트렁크를 원하는 것과 더불어 남에게 보이는 이미지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흐름과 상관없이 콤팩트카에 매력을 느끼는 이들도 많다. 특히 강력한 파워트레인과 세련미를 갖춘 차라면 더욱 눈길을 끌게 마련이다.

최근 등장한 볼보의 R-디자인 시리즈도 바로 이런 차다. 이 차종들은 기존 S60과 V40, V60에 새로운 디자인 파츠를 적용해 더욱 강렬한 이미지로 태어났다. 이들 중 기자의 눈을 가장 사로잡은 차는 V40 R-디자인이다.

V40은 국내 수입 개지백시장의 최강자인 폭스바겐 골프에 맞설 라이벌로 점찍었으나 부족한 라인업이 늘 지적됐다. 이번에 볼보는 V40 D4 R-디자인과 T5 R-디자인을 동시에 공개하면서 각각 골프 GTD와 골프 GTI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

볼보 V40 D4 R-디자인. ▲한 줄 평가: 뛰어난 기본기에 세련미를 더했다. 연비도 좋은 편. ▲별점: ★★★★(안전은 별 다섯 개 준다)

시승차로 배정된 차는 디젤 모델인 D4 R-디자인이다. 외관상으로는 스포티한 범퍼와 휠이 눈에 띈다. 골프가 TDI에서 GTD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쓰인 방식이다. 볼보는 여기에 R-디자인 전용 사이드 미러캡과 리어 스포일러, 전용 엔드 파이프 등으로 차별화했다.

차체 크기를 보면 V40은 골프보다 115㎜ 길고 10㎜ 넓다. 너비는 두 차가 같다. 휠베이스(앞뒤 차축간 거리)는 V40이 2645㎜, 골프가 2640㎜로 5㎜ 차이에 불과하다. 휠베이스에 비해 차체 길이 차이가 크다면 나머지 길이는 앞뒤 오버행(범퍼 끝부터 바퀴 중심까지 거리)으로 배분됐다는 얘기다. 오버행이 짧은 골프의 앞모습이 좀 더 역동적이고 탄탄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대신 뒷모습은 V40이 더 개성 있고 독특하다.

몸을 확실히 감싸주는 V40의 시트는 동급 최고 수준이다. GTD의 시트도 일반 시트보다는 밀착감이 좋지만 질감이나 배감처리가 V40보다 떨어진다. 대신 GTD는 스포티한 D-컷 스티어링 휠로 드라이빙의 만족감을 높인다.

두 차는 라이벌답게 스펙에서도 막상막하다. 최고출력의 경우 V40 D4 R-디자인은 190마력, 골프 GTD는 184마력이다. 최대토크는 V40 D4가 40.8㎏·m, 골프 GTD는 38.7㎏·m다. 이 데이터만 보면 V40이 앞서지만, V40은 GTD보다 125㎏이 무겁다. 따라서 마력당 중량비(1마력이 담당하는 무게, 수치가 적을수록 좋음)를 보면 V40이 8.18, GTD가 7.77로 GTD가 우월하다.

두 차의 성능 차이는 일반도로 주행 중에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두 차 모두 토크감이 좋고, 발진 가속이나 추월 가속성능이 훌륭하기 때문.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8단으로 세분화된 V40의 변속감이 6단 DSG를 쓴 GTD보다는 미세하게 나은 느낌이다. 서스펜션의 경우도 V40이 도로 밀착감이나 승차감에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인다. 물론 그 차이는 크지 않다.

V40의 8단 자동변속기는 연비에서도 위력을 드러낸다. 도심 14.8, 고속도로 20.3, 복합 16.8㎞/ℓ의 연비는 GTD(14.4/18.8/16.1)보다 조금씩 앞선다. 파워는 훌륭하지만 연비가 떨어지던 예전의 볼보 모델들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다. 시가지와 간선도로를 4:6으로 달린 이번 시승에서 V40은 15.0㎞/ℓ를 기록했다.

V40 D4 R-디자인의 가격은 4830만원으로 GTD(4240만원)보다는 비싸다. 대신 V40에는 GTD에 없는 시티 세이프티와 보행자·자전거 감지 시스템, 차선유지 보조 시스템, 보행자 에어백 등이 장착돼 있어 안전도를 높여준다.

V40 R-디자인이 넘어야 할 상대는 골프뿐만이 아니다. 메르세데스-벤츠 A클래스나 BMW 1시리즈, 푸조 308 등도 최근 인기를 끄는 막강한 라이벌들이다. 이 치열한 시장에서 V40 R-디자인이 어떤 반응을 얻을지 궁금하다.

/ferrari@metroseoul.co.kr

<국산차·수입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i30		870	1 620	1 540	1 770
	아반떼MD		1 130	1 150	1 220	1 400
	YF쏘나타		1 160	1 250	1 390	1 670
기아	뉴모닝	540	580	600		
	K3			850	1 400	1 450
	쏘렌토R		1 740	1 890	2 250	2 430
쉐보레	말리부			1 700	1 850	1 950
	올란도			1 490	1 580	1 650
BMW	3시리즈		2 340	2 710	3 130	3 850
폭스바겐	골프6세대		1 940	2 150	2 280	2 500
	티구안		2 480	2 650	3 230	3 36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허니버터칩 vs 수미칩 허니머스타드 vs 포카칩 스윗치즈

미투제품 출시에 건재함 과시 등 자존심 마케팅 전쟁

(왼쪽부터)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농심 수미칩 허니머스타드, 오리온 포카칩 스윗치즈

해태제과 허니버터칩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사들이 미투 제품을 선보이는가 하면 특정 제품에 쏠리는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마케팅을 벌이는 등 관련 업체 간의 자존심 싸움이 유통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농심은 지난 17일 기존 수미칩에 꿀과 머스타드를 더한 '수미칩 허니머스타드'를 내놨다. 원제품 출시 4년만에 리뉴얼해 선보인 이 제품은 '수미칩 오리지널', '수미칩 어니언'에 이은 세 번째 맛 타입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국내 유일 국산 수미감자로 만든 프리미엄 감자칩 '수미칩'에 국내산 꿀과 머스타드 혼合 분말을 뿌려 꿀의 달콤함과 머스타드의 알싸함, 그리고 수미감자 본연의 고소한 맛이 입안에서 함께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라는 농심은 강조했다.

농심은 또 이 제품이 바삭한 조직감과 수미감자의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최적의 두께(1.5㎜)에 얇은 플랫(flat) 형태가 아닌 물결(wave) 형태로 만들어 먹는 재미에 개성을 더했다고 덧붙였다.

농심 측은 "최근 달콤한 먹거리 열풍과 관련이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백화점 식품관과 특급호텔에서 시작된 달콤한 디저트 열풍이 전체 식품 시장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달콤함은 제과의 재빵은 물론 피자, 치킨, 커피 그리고 맥주와 화장품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마케팅 포인트다"라며 허니버터칩에 쏠리는 관심을 분산시켰다.

이런 가운데 나 홀 감자칩 제품에 애정을 쏟아 온 오리온은 자사가 지난 10월 출시한 '포카칩 스윗치즈'로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해태제과 '허니버터칩'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애써 위로하고 나섰다.

오리온 측은 지난 19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닐슨 컴퍼니의 시장 조사 자료를 보면 올해 국내 생감자칩 시장은 11월까지 연간 누적 매출 기준으로 약 1800억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중 오리온 '생감자칩' 제품(포카칩·스윙칩·눈을감자)들이 지난해보다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며 올 11월까지 연간 누적 매출 기준 점유율은 약 61%로 변함없는 절대 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사의 '포카칩' 제품만 보더라도 이음에 과자 시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경쟁 제품(허니버터칩)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연간 누적 매출 기준으로 전년 동기 점유율 에 비해 2.5% 성장한 약 41%의 시장 점유율로 생감자칩 시장에서 흔들림 없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경쟁사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불편한 심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 덧붙여 "올해 11월 포카칩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약 50%의 성장률을 보이며 변함없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오리온 포카칩의 뒤를 이어 농심의 '친포테토'와 '수미칩', 해태의 '자가비' 등이 나머지 39%의 시장을 분할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올해도 생감자칩 시장이 기존의 영향력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허니버터칩의 이름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정영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걸으면서 기부하는 新 앱 '빅워크' 동참

푸르밀, 넥슨·다음카카오와 기부 행사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 기업들의 사회공헌과 기부 활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기부금이나 물품을 전달하는 기존의 단순 방식에서 벗어나 이색적인 기부 방식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SNS를 통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소셜 기부'가 있다. 가장 혁신적인 앱 기부로 '빅워크'를 꼽을 수 있다. 걷는 것 만큼 기부가 되는 방식으로 기부자가 걸은 거리 10m에 1원씩이 실시간으로 자동기부 된다.

빅워크는 2012년부터 오프라인 행사로 '빅워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정한 거리를 걷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 '걸음을 잇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장애 인식의 편견을 바꾸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환주해 절단장애아동에게 의족을 선물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도 해당 프로젝트에 푸르밀 제품을 협찬해 기부에 동참했다. 푸르밀 측은 경기도 광주중앙공원에서 열린 '제5회 드림워크 페스티벌' '걸음을 잇다'에 자사 대표 유산균 발효유 제품 '비피더스'와 카페베네와 함께 만든 '푸르밀 카페베네 컵커피'를 지원했다.

이 밖에도 푸르메재단은 넥슨과 함께 스타 영웅의 페이스북 게시물 '좋아요' 수가 1000개를 달성하면 730만원을 기부하는 '영웅 땅도 릴레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 연말을 맞아 다음카카오는 이웃들의 소원 글에 등록되는 댓글 1개당 1000원이 기부되는 '희망해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정영일기자

강강술래, '겨울방학 영양간식' 40% 세일

곰탕·육포·떡갈비 등 다양… 연극 티켓도 증정

이번 주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아이들에겐 신나는 일이지만 자녀를 둔 주부들은 식사뿐만 아니라 간식 메뉴까지 챙겨야 해 깊은 고민에 빠지는 시기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다양한 영양간편식을 이달 말까지 온라인쇼핑몰(www.sullai.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파격가로 선보인다.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박스(800㎖ 6팩·18인분)는 3만3800원, 소용량박스(350㎖ 10팩·20인분) 3만78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박스(50g 10봉) 3만60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된다.

100% 한우갈비살만을 사용한 찹찹한우떡갈비(360g×3박스) 3만9600원)와 흑염지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나 함유된 흑염지한돈너비아니(360g×3박스=2만5200원)도 40% 할인가로 선보인다.

매장 인기메뉴로 구성된 송년세트(슬레강불대+한우불고기600g+한돈양념구이500g+도지양념구이500g)도 40% 할인된 6만원에 판매한다.

한편 오는 28일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 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대학로 예술공간 유비누리 멤질 전용관에서 공연되는 '그녀를 믿지 마세요' 티켓도 증정한다.

사랑을 만들어 주는 연애컨설팅을 배경으로 주인공이 2년간의 백사랑이 결실을 맺는 과정을 유쾌하게 보여준 로맨틱 코미디로 재치와 폭소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전반에 배치돼 있어 공연 내내 지루할 틈이 없이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한다.

/정영일기자

1만원대 크리스마스 와인 홈플러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내년 1월 7일까지 전국 140개 점포에서 호주산 화이트 와인 '린다만 스위트 모스카토'(정상가 1만4000원)를 20% 할인한 1만1500원에 판매한다. 이 와인은 산뜻한 열대 과일의 향미와 신선하고 가벼운 맛이 특징이다.

/홈플러스 제공

"홈파티 요리 어렵지 않아요"

브레빌-메트로신문 쿠킹클래스 성료

호주 가전 브랜드 '브레빌'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할라카르테 강남점 쿠킹스튜디오에서 쿠킹클래스를 개최했다.

메트로 신문과 함께 독자 서비스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엔 온라인 접수를 받은 추첨된 주부, 학생 등 9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홈파티를 콘셉트로 '캐슈넛&바질 딥', '목살 스테이크 꼬치', '새우볶음밥' 등의 메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할라카르테 강남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보경 파티시에의 강의가 1시간 여 동안 진행됐으며 클래스에는 브레빌의 그릴·주서기·블렌더 등의 도구가 사용됐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레시피에 대해 질문하고 요리가 나올 때마다 사진을 찍는 등 클래스에 열의를 보였다. 예정돼 있던 메뉴 외에도 그릴을 이용해 파니니를 만드는 법을 공개해 호응을 이끌어냈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만든 요리를 시식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 최서희씨는 "연말 홈파티에 내놓을 요리를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브레빌은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동시에 뛰어난 인공지능 기능과 강한 내구성, 정밀한 기술력으로 카페의 바리스타, 호텔 셰프, 유명 [illegible] 등이 소장하고 싶은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수정기자 [illegible]

'어반 에스키모 룩' 인기

슬림핏 패딩·어그 부츠 활용 … 방한효과 뛰어나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에 '어반 에스키모 룩'이 인기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두꺼운 패딩과 퍼(Fur) 장식으로 마치 에스키모인을 연상케 하는 이 스타일은 혹한을 맞서기에 충분하다"며 "어반 에스키모 룩에는 투박한 패딩 대신 '슬림핏'의 개성 있는 여성 스타일 점퍼가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특히 하이패션에서 영감을 받아 잘록한 허리선과 독특한 패턴, 라쿤과 같은 고급스러운 소재의 퍼 등으로 개성을 살린 패딩 점퍼는 따뜻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만족시켜 패션 피플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에스키모 룩을 연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어그 부츠'다. 부츠 역시 투박하고 펑퍼짐한 제품보다 스웨이드 소재에 라쿤 퍼로 마무리된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인기다. 이런 어그 부츠는 포멀한 정장에도 신을 수 있어 실용적인 것이 특징이다.

발목까지 오는 앵클 어그 부츠는 귀여운 분위기를 연출해 감각적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젊은 여성들이 선호한다.

제시앤코 디자인연구소의 김자경 차장은 "올 겨울 라쿤 소재의 화려한 퍼와 에스닉풍 패턴이 결합해 이국적인 멋이 풍기는 패딩이 유행"이라며 "더불어 보온성이 뛰어난 충전재를 사용해 슬림핏으로 날씬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까사미아·라인 협업 매장 /까사미아 제공 뉴트로지나 카페베네.

유통업계, 협업 마케팅 활발

뷰티브랜드, 카페서 핸드크림 샘플링·가구업체가 IT 캐릭터 선보여

기업들이 업종을 뛰어넘은 '협업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카페에서 신상 화장품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면 리빙전문 매장에서 IT서비스의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뉴트로지나는 올 겨울 신제품 '노르딕 베리 라인'의 대규모 프로모션을 카페베네와 함께 진행한다.

22일 열리는 카페베네 동지 이벤트를 통해 겨울 한정메뉴인 순수 단팥죽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뉴트로지나 노르딕 베리 2종 샘플 키트를 나눠준다.

이날 전국 880여 개 매장에서 증정되는 샘플 수량은 총 4만개다. 이뿐 아니라 12월 한 달간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한 고객에게 올리브영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00원 할인쿠폰을 소진 시까지 증정한다. 특히 압부 매장에서는 화장실 세면대에 '노르딕 베리 바디 모이스춰라이저'가 비치돼 손을 씻은 후 제품을 바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토털 인테리어 브랜드 까사미아는 이달 초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손잡고 브라운, 코니 등 라인의 인기 캐릭터를 응용한 협업 제품을 선보였다.

까사미아는 압구정동 플래그십 매장에서 침구, 쿠션, 방향제 등 협업 제품 35종을 우선 내놓고 올 연말까지 총 79개의 제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까사미아는 출시를 기념해 까사미아는 압구정점 방문고객에게 선착순으로 라인프렌즈 캐릭터 열쇠고리를 무료로 증정하고, 이달 말까지 모든 협업 제품을 30% 할인 판매한다.

패션브랜드도 카페와 손을 잡았다. 커피빈 코리아는 '이나영 가방'과 '민두백'으로 인기몰이 중인 프랑스 액세서리 브랜드 랑카스터와 협업 이벤트를 실시한다. 매장에서 커피빈 카드에 20만원 이상 충전한 고객에게 27만8000원 상당의 랑카스터 클러치를 선물로 준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초대형 또봇 등장 완구 기업 '영실업'이 21일 서울 강서구 롯데몰 김포공항점 스카이파크에서 초대형 또봇 조형물을 공개하고 있다. 또봇 델타트론 조형물의 크기는 크기는 길이 5m, 폭 3m, 높이 6m이며 무게는 약 3톤이다. /영실업 제공

완구시장 '스마트 토이' 열풍

IT 접목 제품 잇따라 출시

최근에는 불황 무풍지대라 불리는 완구 시장에도 '스마트 열풍'이 불고 있다. IT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어른과 어린이를 동시에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해즈브로가 출시한 '퍼비 붐'(사진)은 말을 걸면 대답하고 간지럽히면 앞뒤로 움직이는 등 인터랙티브 감성 인형이다. 이 제품은 지난해 출시된 '퍼비'에 디자인, 기능 등을 강화해 새롭게 선보인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돌봐주면 앱 속에서 알(퍼블링)을 낳는 기능이 추가돼 5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알을 모을 수 있고 ▲행복 지수 ▲배고픔 지수 ▲청결 지수 등을 확인해 맞춤 케어를 할 수 있다.

손오공은 최근 여아 완구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스케치북 제품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해 놀이를 할 수 있는 신기한 3D 매직 카드를 선보였다. 그림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하면 직접 그린 캐릭터가 3D 화면으로 떠올라 움직인다. 캐릭터와 사진을 찍거나 미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토이트론은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는 스마트 토이 '퓨처아이 3D 망원경'을 내놓았다. 3D 뷰어와 망원경이 하나로 된 제품으로 평상시엔 물체가 2.5배 커지는 고성능 관찰 망원경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스마트폰과 함께 하면 3D 뷰어로 변신한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라는 옷을 입고 완구 시장이 진화하고 있다"며 "이들 제품은 정교한 기능으로 아이뿐 아니라 성인들이 갖고 놀아도 지루하지 않을 만큼 똑똑한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콜러노비타, 욕실건자재로 영역 확장

콜러사 유통망 활용·박해진 모델 기용 … 中 시장 공략

'비데'로 유명한 콜러노비타가 욕실건자재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또 콜러사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시장도 적극 공략한다.

콜러노비타는 지난 19일 역삼동 더 라움에서 30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생활건강가전으로 쌓은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욕실건자재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최계관(사진) 사장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해왔다"며 "창립 30주년을 맞은 올해는 무역의 날 업계 최초로 3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비데 누적 생산 500만 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한 해"라고 30주년을 맞은 소감을 말했다.

노비타 브랜드를 내세워 욕실건자재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 나, 패키지로 구성해 비데 사업과 시너지를 낸다는 전략이다. 현재 변기, 세면대 등 상품 구성을 끝낸 상황이며 중저가로 편성했다.

최 사장은 "비데만 판매하다 보니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향후 패키지로 하면 비데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16년부터는 라인업을 확대해 풀 패키지를 도입할 계획이며 3~4년 후에는 국내 톱 3로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한다. 중국 시장에 강한 콜러사의 유통망을 활용해 비데를 중심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한편 유통망 확대 일환으로 온라인 쇼핑 진출도 검토 중이다. 또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배우 박해진을 새로운 광고 모델로 선정해 브랜드를 홍보한다.

최 사장은 "중국은 아직 비데 문화가 많이 확산이 안된 상황이라서 기회가 많은 곳"이라며 "비데를 비롯한 생활건강가전으로 쌓은 브랜드 파워와 콜러사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적극 공략해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어릴때 운동 평생 키 좌우

부모의 유전자가 아이 키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운동과 영양,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그중 운동하는 습관은 키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평생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먼저 키 성장을 위해서는 뛰어 내려 뛰는 동작이 있어 무릎 성장판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이 효과적이다. 농구와 줄넘기가 대표적으로 특히 줄넘기는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 발육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단 줄넘기를 할 때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은 피해야 한다.

또 수영·축구·달리기와 같은 전신 운동도 아이에게 좋다. 하루에 20~30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모가 함께 운동을 하면 아이들의 동기 유발에도 도움이 된다. 또 전신 운동은 체지방을 낮춰줘 소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이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칭은 성장호르몬 분비 촉진은 물론 성장판을 자극하며 뼈와 근육도 튼튼하게 한다. 아울러 스트레칭 전후로는 관절 부분을 가볍게 마사지해야 한다.

만약 아이의 성장이 또래보다 느리거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성장 관련 병·의원을 찾아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이가 표준 키보다 10cm 이상 작거나 성장기 동안 4cm 이상 자라지 않을 때는 성장장애로 판단할 수 있다.

박진용 연세예준병원 원장은 "큰 키가 선호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반대로 운동 부족이나 식습관 변화 등으로 성장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늘고 있다. 평소 아이 성장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크리스마스를 공연과 함께…

한강 전망 63빌딩 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

거리에 캐롤이 들리고 오색으로 장식된 장식된 트리를 보면서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에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추억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색다른 장소에서 특별한 콘셉트로 펼쳐지는 공연들을 소개한다.

먼저 63빌딩의 63 컨벤션센터에서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2014 사운드베리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린다. 63 컨벤션센터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강 뷰를 자랑하는 별관 4층 라벤더&로즈마리에서 우리가 꿈꾸는 크리스마스 등 주제로 펼쳐지는 공연은 실내 테라스형 페스티벌로 3개의 실내외 특설무대에서 공연이 이어진다. 언니네 이발관·데이브레이크·바닐라어쿠스틱 등 다양한 인디 뮤지션들이 무대를 꾸밀 예정이며 시크릿 애프터 파티와 63 컨벤션센터 최고의 셰프들이 준비한 특선 뷔페 등도 축제의 즐거움을 더한다.

프로스트(PROST Pub&Grill)와 글램 라운지(GLAM Lounge) 클럽 뮤트(Club MUTE)를 아우르는 이태원의 복합 문화 공간 디스트릭트(DISTRICT)와 비원라운지 클럽(B1 Lounge Club)도 크리스마스를 맞이 24일 아주 특별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20년간 마이클 잭슨의 보컬 코치로 활동한 도리안 홀리(Dorian Holley)의 제자들 구성된 싱어 트리오가 '크리스마스 모타운 메들리'(Christmas Mo-town Medley)를 준비하며 공연은 프로스트와 글램 라운지, 비원 라운지 클럽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크리스마스 당일 대림미술관에서는 파스텔뮤직과 대림미술관이 주관하는 '2014 크리스마스 파티: 사람의 단상'이 개최된다.

/윤재용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매일유업, '난치병 환아용' 특수분유 공급

14년간 소수 아동을 위한 지원활동에도 앞장

세상의 모든 아기에게 최고의 식품은 '모유'이다. 하지만 모유는 물론 분유마저도 먹을 수 없는 아기들이 있다. 선천대사이상을 갖고 태어나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들이다.

신생아 6만 명 중 1명 꼴로 태어나는 선천성 대사이상(페닐케톤뇨증, 이하 PKU) 환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거나 만들어지지 않아 모유는 물론 고기, 생선과 심지어 쌀에 보관된 단백질 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 국내에는 현재 약 400여 명이 이 질환을 앓고 있다. 이들은 식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분해하지 못하는 아미노산과 대사산물이 축적되어 운동발달장애, 성장장애, 뇌세포 손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유업(대표 김정완)은 선천적으로 아미노산 대사이상 질환을 갖고 태어난 유아를 위해 특정 아미노산은 제거하고 비타민·미네랄 등 영양성분을 보충한 특수 유아식 8종 10개 제품을 순수 자체기술로 개발해 지난 1999년부터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PKU 질환용 특수 유아식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는 드물다.

PKU 환아들의 부모모임 회장 정 씨는 "그동안 특수분유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그동안 한 캔에 5만~6만원 대의 고가 수입 분유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수익성이 없어 회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소수의 환아들을 위한 특수분유를 국내 자체기술로 개발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매일유업은 환아 가족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희망을 주기 위해 한국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는 'PKU 가족캠프'에 1회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후원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제14회 PKU 가족캠프 모습

/정윤희기자 jmmy@

'메디컬코리아 대상' 최고상

이대목동병원, 간질환 치료 중심 병원 인정

이대목동병원 간센터가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메디컬코리아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병원 부문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1일 밝혔다.

메디컬코리아는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부문 등 최우수 병의원과 제약산업 선진화를 이끈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간센터는 종합병원 부문 종합평가지수 비교 분석을 통해 최고점을 획득하며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간염뿐만 아니라 간염과 간경변증 등 간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하고 있으며 간질환 통합진료 시스템 운영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유권 이대목동병원장 겸 간센터장은 "이대목동병원 간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통합진료 시스템으로 치료 성과와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며 "향후 환자별 맞춤형 진료 서비스 강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간센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혈관도 관리가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병원 찾고 유산소 운동 하도록

혈관은 심장과 인체 각 부분을 연결해 혈액을 순환시키는 통로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면서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혈관에서도 노화가 시작되는데 노화가 찾아오면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딱딱해진다.

이렇게 혈관이 노화되면 혈류 방해 등 각종 증상이 나타난다. 실제로 혈관 노화가 50% 이상 진행되면 손발에 힘이 빠지고 통증이 생기며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이상이 찾아오기도 한다. 또 식사 후 배에서부터 머리로 이어지는 통증 역시 혈관 노화의 신호이며 협심증과 고혈압은 물론 남성의 경우에는 발기부전이 생기기도 한다.

문제는 혈관이 눈에 보이지 않고 혈관 질환 역시 혈관 노화가 상당히 진행된 후 발생해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본인에게 혈관 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혈관의 노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병원을 찾아 정밀한 수치를 측정해 본 후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동맥은 뇌로 가는 혈액의 80% 이상이 지나는 주요 통로로 내부 공간이 좁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식습관을 갖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금주나 금연을 해야 한다. /황재용기자

타임머신을 타고 온 걸그룹

3인조 보컬그룹 바버렛츠

자칭 '정통 걸그룹'… 노래도 의상도 예스럽게 우리의 화음만 있다면 새로운 장르도 OK

사람도 가슴도 노래도 최첨단을 달리는 2014년. 마치 1960년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세 여자가 등장했다. 정수리를 가득 부풀린 일명 '뽕머리'에 빨간 립스틱, 새초롬하게 치켜 올려 그린 아이라인까지. 3인조 걸그룹 바버렛츠(안신애·김은혜·박소희)는 외모뿐만 아니라 음악도 예스러움을 추구한다. 스스로를 '정통 걸그룹'이라 칭하는 이들의 무대를 지켜보고 있으면 1950년대 우리나라 최초 여성 보컬그룹 김시스터즈가 떠오른다.

◆ 시간여행 걸그룹

바버렛츠는 2012년에 그룹을 결성해 지난 5월 '바버렛츠 소곡집 #1'으로 정식 데뷔를 했다. 세 여자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화음을 듣고 있으면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느낌이다.

특히 타이틀곡 '가시내들'의 가사인 "조그만 가시내들이 모여서 노래 부르면 온 동네 청년들은 마음 설레어 하네" "꽃 피는 봄날이 오면 어여쁜 새 옷을 입고 새로 만날 나의 님 맞을 준비를 하네" 등을 보면 옛날 노래를 리메이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노래는 리더 안신애가 만든 곡에 멤버 셋이 함께 노랫말을 썼다. 정말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여행을 온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말에 안신애는 "나는 88년생(26)이고 은혜는 87년생(27), 소희는 91년생(23)"이라고 밝혔다.

"신애 언니와 저는 실용음악학원의 선생님과 제자 관계였어요. 은혜 언니와 신애 언니는 같은 재즈 클럽에서 노래하다 만났고요. 셋이 모여서 화음 연습을 하다 지금처럼 됐어요."(소희)

"제가 화요일 보컬, 언니가 목요일 보컬이었어요. 지금 그 재즈 클럽은 망했어요(웃음). 손님이 없었거든요."(은혜)

"처음 셋이 모인 때부터 콘셉트를 확실히 잡고 시작했어요. 2012년에 모여서 계속 연구를 거듭했죠."(신애)

복고풍의 음악을 추구하는 이들의 겉모습 역시 예스럽다. 특히 KBS1 '가요무대'에 오른 이들은 잔뜩 부풀린 머리와 온 몸에 달라붙는 황금색 스팽글(반짝이)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빨간 꽃을 달고 등장했다.

"'가요무대'에 입고 나간 드레스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구한 옷이죠. 광장시장 같은 데서 옛날 옷을 사 입기도 하는데 주로 인터넷 쇼핑을 이용했어요."(신애)

"데뷔 음반 나오기 전에는 머리도 직접 만지고 화장도 저희가 했어요. 옷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팽글 원피스', 'A라인 스커트' 이렇게 검색해서 찾는거죠(웃음). 여기에 머리랑 화장만 좀 다르게 해도 확 달라진답니다."(은혜)

이들이 '가요무대'에서 부른 노래는 1961년에 발표된 한명숙의 '노란샤쓰의 사나이'였다. 바버렛츠는 보컬그룹이지만 얌전히 서서 노래만 부르지 않는다. 손동작은 물론 '트위스트'도 가능한 걸그룹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철저하게 복고풍이다.

"바버렛츠 결성 초기부터 저희끼리 '가요무대' 나가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다른 인터뷰에서도 몇 번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먼저 섭외 요청이 왔어요."(소희)

"사실 장난이 30% 정도 섞인 바람이었는데 진짜 이뤄질 줄은 몰랐어요. 안무연습은 따로 안하고 노래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거울을 보며 같이 연습하죠."(신애)

◆ 세 여자의 하모니

이들의 인기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로네츠의 '비 마이 베이비' 커버 영상에는 세계 각국의 팬들의 칭찬 댓글이 잔뜩 달려있다. 이 영상의 인기는 유튜브를 넘어 동영상 콘테스트 사이트 뷰브닷컴(vube.com)에서 '이달의 동영상' 30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영상을 우연히 접한 록 밴드 메가데스 출신 기타리스트 마티 프리드만은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해 바버렛츠와 작업하기도 했다. 현재 바버렛츠의 목소리로 부른 '비 마이 베이비'는 모 카드사 TV 광고 삽입곡으로 쓰이고 있다.

"저희는 '바버샵 아카펠라'를 해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20세기 초반 스타일의 재즈풍 중창이죠. 합창단에는 베이스, 바리톤, 테너가 있잖아요. 3·4중창은 그걸 서너 명으로 압축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의 가창력이 중요해요."(신애)

바버샵 아카펠라는 1920년대 미국 이발소(바버샵)에서 남성 4중창단이 노래하던 것에서 유래했다. 안신애는 바버샵 아카펠라를 하기 때문에 그룹명도 거기서 따온 것이라 설명했다.

"외국인 친구에게 바버샵을 넣어서 팀명을 지어 달라 해서 탄생한 이름이죠. 근데 영국에서 활동하는 주부합창단 중에 바버렛츠가 있대요."(신애)

이미 유튜브 스타인데 영국에 진출했다가 팀명 때문에 곤란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 김은혜는 "영국 어머니들이 설마 고소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 시드라고 잘 해결보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들은 재즈풍의 음악을 주로 하지만 특정 스타일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평소 즐겨 듣는 음악과 아티스트를 묻는 질문에 안신애는 "1970년대 포크송과 컨트리 음악을 주로 듣는다"며 제니스 조플린, 빌리 홀리데이, 돌리 파튼을 꼽았다. 특히 돌리 파튼에 대해 "젊었을 때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천사가 따로 없다"며 팬심을 드러냈다. 김은혜는 "힙합을 좋아한다"며 "R&B 보컬과 어우러진 힙합을 즐겨 듣는다"고 말했다. 박소희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팬이라고 밝혔다. 목소리만큼 좋아하는 노래도 가지각색이다.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할 것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전 지금 이것만으로도 벅차요."(소희)

"연습할 때 TLC의 '워터폴스', S.E.S의 '드림스 컴 트루' 등의 노래도 불러요."(은혜)

"세 명의 색깔이 다 달라요. 다음 앨범이 나오면 그때 또 다른 색깔이 있을 거예요. 바버렛츠에게 변하지 않는 건 화음을 이용한다는 것이죠."(신애)

/김지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디자인/[illegible]

감동과 화려함 사이 '90분 줄타기'

'미생' 종영…임시완 가르마, 태인호 불륜…시청률 최고치 경신

올 하반기 직장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tvN 금토드라마 '미생'이 뜨거운 관심 속에서 20일 종영했다.

이날 방영된 최종회는 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가구 기준 평균 시청률 8.4%, 최고 시청률 10.3%를 기록하며 자체 시청률 최고치를 경신했다.

드라마 '미생'은 원작처럼 '해피엔딩'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제작진은 결말을 충실히 담아내기 위해 마지막회 러닝타임을 90분으로 늘리는 파격 편성을 감행했다.

계약직 사원 장그래는 정규직 전환에는 실패했다. 선 차장(신은정)을 필두로 한석율(변요한)·안영이(강소라)·장백기(강하늘) 등 동기 3인방은 장그래의 정규직 전환을 돕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특히 한석율이 사내 게시판에 올린 장그래의 정규직 전환을 호소하는 글을 장그래가 밤 늦은 시간에 읽으며 오열하는 모습은 시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장그래는 원인터내셔널을 나가 새로운 회사로 자리 옮긴 오 지장의 부름을 받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영업 3팀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고전하던 김동식 대리(김대명)도 합류해 영업 3팀은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뭉쳤다.

그동안 미궁 속에 있었던 섬유팀 성 대리(태인호)의 비리도 폭로됐다. 성 대리의 비리는 거래처와의 '뒷 돈 거래'가 아닌 여사장과의 불륜으로 밝혀졌다. 국내 드라마 최초 요르단 로케이션 촬영으로 화제를 모았던 1화의 '프롤로그' 요르단 신은 '서전상 에피소드'로 후반부에 다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두 이야기로 인해 표평으로 마무리 될 것 같았던 '미생'은 시청자들의 아쉬운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성 대리의 비리는 왜 꼭 불륜이어야 했는지 설명이 부족했다. 사무실 난투극은 마치 '사랑과 전쟁'을 보는 것 같았다는 혹평도 받았다.

요르단 추격전도 말쑥해진 임시완의 가르마처럼 불안해 보였다. 원작에 없던 이국적인 모습을 담아낸 것은 '완생'으로 나아가는 임시완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제작진이 시청자에게 주는 통쾌한 마지막 선물로서 좋은 시도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다소 지나친 설정이라는 불만의 소리도 있었다.

그럼에도 '미생'이 2014년을 대표하는 걸작 드라마라는 사실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영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이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스페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제작 스토리를 담은 '나는 아직 미생' 2부작이 방송된다. 내년 1월 2일과 3일은 '미생'의 주역들이 출연하는 현장토크쇼 '텍시' 신년특집이 전파를 탈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엑소·인피니트·비스트…신해철 부른다

'KBS 가요대축제' 넥스트 밴드와 추모 공연

아이돌 그룹 엑소(위 사진)·인피니트(아래)·비스트가 밴드 넥스트와 함께 지난 10월 27일 세상을 떠난 고(故) 신해철의 추모 공연 무대에 오른다.

KBS 측은 오는 26일 방송되는 '2014 KBS 가요대축제'에서 그룹 엑소·인피니트·비스트가 신해철의 추모 무대에 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세 그룹은 신해철의 추모 무대에서 직접 연주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무대는 한국과 중국에서 맹활약 중인 엑소를 비롯해 인피니트와 비스트가 한꺼번에 나서는 이례적인 공연이다. 제작진도 무대 준비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번 '2014 KBS 가요대축제'는 최신 장비를 이용한 화려한 세트가 준비돼 있어 볼거리를 더할 전망이다. 넥스트와 후배 아이돌 그룹들이 함께 선보일 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제작진은 "일평생 굽히지 않는 아름다운 음악혼을 보여줬던 신해철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곡을 선보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엑소·인피니트·비스트가 진정성 있는 무대를 만들고자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올해의 슬픔을 음악이 주는 사랑으로 승화시킨다는 이번 축제에 걸맞는 최고의 무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4 KBS 가요대축제'는 26일 오후 8시 30분부터 220분간 KBS홀에서 열리며 KBS2를 통해 생방송된다. /김학철기자

"이러나 저러나 14년차 딴따라"

싸이, "내년 한곡으로만 승부하지 않아"

내년에는 월드스타 싸이(37·사진)의 국내 활동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싸이는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올나잇 스탠드 2014' 공연에서 "내년에는 한 곡으로 승부하지 않겠다"며 "지난 2012년에 ('강남스타일'로) 받았던 관심이 너무나 과분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데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싸이는 당초 올해 신곡 '대디'를 발표하려고 국내에서 뮤직비디오까지 촬영했지만 신곡 발표에 급급하기보다 완성도 높은 음악을 선보이는 게 의미 있다고 판단해 발표를 미뤘다.

그는 "내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 '나원' 같은 여러 노래를 만들다 보면 좋은 노래가 나올 것이다. 기회가 돼서 '강남스타일'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랑해 주면 고맙고 그게 아니어도 제가 하던 일을 묵묵히 해나가겠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대학 축제를 좋아하는데 3년 동안 못 갔다"며 "MBC '무한도전'을 보면서 '극한알바' 편도 내가 나갔어야 하는 데라고 생각했다. 내년부터는 원래 하던 것을 열심히 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싸이는 '라잇 나우(Right Now)'를 비롯해 '새', '챔피언', '젠틀맨', '연예인' 등의 과거 대표곡을 연이어 선보였다. 그는 "엽기 가수로 시작했지만 최근 2~3년 말도 안 되는 수식어를 받았다"며 "이러나 저러나 나는 대부 14년째 딴따라 싸이"라고 말해 관객의 큰 환호를 받았다.

한편 이날 싸이는 고(故) 신해철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의 영상을 배경으로 조용필의 '친구여'를 불러 감동을 선사했다.

/김학철기자

90년대 ★들 안방을 '들었다 놨다'

'무한도전-토토가' 특집, 김정남·슈 활약으로 웃음… 시청률 1위

세월 속에서 한층 푸근해진 90년대 스타들이 지난 주말 안방을 들었다 놨다 하며 웃음을 선사했다.

20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은 90년대 가요계 스타들의 무대를 다시 만나는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이하 '토토가') 특집 섭외 과정 두 번째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방송은 90년대 스타들의 활약에 힘입어 전주보다 소폭 상승한 시청률 15.3%(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동시간대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날 '무한도전'의 '토토가' 특집의 포문을 연 것은 터보의 전 멤버 김정남이었다. 지난 1996년 2집 음반을 끝으로 터보에서 탈퇴한 김정남은 이날 기존 멤버 김종국과 함께 약 17년 만에 다시 터보 무대를 선보였다.

터보로 활동할 당시 김정남은 선글라스를 쓰고 관절을 꺾는 현란한 '각기춤' 퍼포먼스로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날 방송에서는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푸근해진 아저씨의 모습이 시청자에게 웃음으로 다가갔다.

지난 10년 동안 김종국 없이 나이트클럽에서 활동했다는 그는 이날 방송에서 일명 '업소 버전'의 터보 무대를 꾸몄다. "안녕하세요, 터보의 김정남입니다. 요새 김종국이 많이 바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혼자 해야죠"라는 능청스러운 인사 멘트에 맞춰 노래를 하는 모습으로 안방에 폭소를 안겼다.

핑클과 함께 90년대 '원조 요정'으로 인기를 얻었던 S.E.S의 슈도 세월을 무색하게 만드는 '끼'로 멤버들을 놀라게 했다.

이날 방송에서 슈는 바다와 함께 출연해 S.E.S의 히트곡 무대를 선보였다. 그는 S.E.S 노래가 나오자 이내 안무를 자연스럽게 소화해 시선을 끌었다. 흥에 겨운 듯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은 바다까지 놀라게 할 정도였다.

슈는 "바다 언니를 보며 부러울 때가 많았다. 나는 아이를 키우느라 몇 년 동안 주부로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살게 됐다. 언니에게 '우리 언제 공연해'라고 말하고는 했다"며 그 동안 무대에 대한 욕심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무한도전'의 '토토가' 특집에는 완전체로 돌아온 지누션과 가수 이정현, 조성모, 김건모 등이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오는 27일 방송에서는 90년대 가수들의 전설적인 무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토토가' 공연이 공개될 예정이다.

/서정호 기자 solann@metroseoul.co.kr

국제시장 / 호빗: 다섯 군대 전투

크리스마스·연말 흥행 대결 뜨겁다

'국제시장' '호빗' 개봉 첫 주말 100만… '님아'는 200만 돌파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둔 극장가를 둘러싼 본격적인 흥행 대결이 시작됐다. 지난 17일 개봉한 '국제시장'과 '호빗: 다섯 군대 전투'가 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흥행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국제시장'은 주말 동안 44만2825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913개 스크린에서 총 4759회 상영됐다. 누적 관객수는 110만1236명으로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호빗: 다섯 군대 전투'는 근소한 차이로 박스오피스 2위에 랭크됐다. 20일 하루 동안 모은 관객은 '국제시장'보다 약 2만7600여 명 적은 41만5643명이다. 스크린 수는 913개로 '국제시장'과 같았으나 상영횟수는 4534회로 다소 적었다. 누적 관객수는 94만9343명으로 1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또 다른 한국영화 기대작인 '기술자들'과 '상의원', 그리고 디즈니의 뮤지컬 영화 '숲속에서'가 개봉을 준비 중이다. 이들 작품들이 연말 극장가에서 더욱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성 영화 흥행으로 주목받고 있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개봉 24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20일 하루 동안에서 30만2910명의 관객을 추가하며 누적 관객수 210만2489명을 기록했다.

'인터스텔라'는 1000만 고지를 눈앞에 두고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일까지의 누적 관객수는 988만3372명이다. 연말 대작들 사이에서 스크린을 얼마나 확보할 지에 따라 1000만 돌파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장병호 기자

공황장애 김구라 퇴원

개인사 공개로 힘들어 해… 방송 녹화 당분간 미정

공황장애로 입원했던 방송인 김구라(44, 사진)가 퇴원해 집에서 휴식 중이다.

김구라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일 "김구라가 입원기간 약물치료로 지쳐있던 심신이 상당히 치유가 됐다"며 "병원 측에서 조용하고 편한 곳에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도록 권유해 퇴원했다"고 전했다.

김구라는 지난 16일 불안증과 이명증상으로 인한 공황장애 증상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지난 5월께부터 공황장애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이 사실을 방송에서도 몇 차례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김구라의 입원을 가족의 금전 문제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이번 일로 김구라의 개인사가 공개돼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가족에 대한 추측 기사는 자제해 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더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구라는 입원으로 MBC '세바퀴', JTBC '썰전' 등의 녹화에 불참했다. 소속사 측은 "녹화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새해 더 다양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손연재 러시아서 귀국…새 시즌 프로그램 완성도 높이는 중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가 21일 러시아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했다. 올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만큼 내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21일 러시아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손연재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시즌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며 "다음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손연재는 올해 인천 아시안게임 리듬체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아시아 선수 최초로 후프 동메달을 차지하는 등 빛나는 한 해를 보냈다. 그는 "올해는 만족스러운 한 해였다"며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내년, 내후년에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지난 5월 러시아로 출국한 손연재는 새 시즌에 선보일 안무와 음악을 준비해 돌아왔다. 2015년 시즌에는 후프·볼·곤봉·리본 등 4가지 종목에서 모두 다른 장르와 분위기의 연기를 펼칠 계획이다.

21일 오전 러시아 전지훈련을 마친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 /연합뉴스

선곡한 음악도 공개했다. 후프는 이스라엘 피아니스트 다니엘 아드니의 클래식 연주곡 '코니시 랩소디', 볼은 스페인 가수 라파엘의 '소모스', 곤봉은 델라댐의 재즈 포크곡 '지가니', 리본은 아돌프 아담의 '르 코르세르'로 선곡했다.

손연재는 "종목마다 다른 장르 음악을 선택한 만큼 다양한 모습을 준비했다"며 "연기에는 성숙미를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 프로그램은 내년 2월에 열릴 모스크바 그랑프리 대회에서 첫 공개될 전망이다. 손연재는 "프로그램을 다 만들기는 했지만 구성요소와 점수를 생각해서 더 맞춰나가야 한다"며 "모스크바 그랑프리 대회에 맞추려면 조금 더 빠듯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회를 시작으로 손연재는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 시리즈와 세계선수권,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등 다양한 국제 대회에 출전해 빠듯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 가장 성적 욕심이 나는 무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다. 올해 거둔 후프 동메달, 개인종합 4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목표다.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손연재는 "선수로서 마지막 올림픽 무대가 될 수 있어 각오가 남다르다"며 "(개인종합 5위를 차지한) 런던 올림픽 때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강정호 500만 달러에 MLB 진출

류현진 이은 역대 두 번째 포스팅 금액

강정호(27·넥센 히어로즈·사진)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한다.

넥센은 20일 "메이저리그 구단이 포스팅(비공개 입찰)을 통해 강정호를 영입하겠다고 써낸 최고응찰액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메이저리그 구단이 강정호를 영입하겠다고 제시한 최고 응찰액은 500만2015달러(약 55억원)다.

넥센은 "내부 논의 끝에 대한민국 야수로는 최초의 도전이 되는 이번 포스팅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포스팅 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정호의 포스팅 금액은 역대 포스팅시스템에 참가한 한국 선수 중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2573만7737달러33센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액수다. 류현진이 받은 금액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올해 포스팅에 나선 한국프로야구 출신 선수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앞서 좌완 투수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구단의 최고 응찰액 200만 달러를 받아들인 뒤 한 달 동안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SK에 잔류했다. 역시 좌완 투수인 양현종은 기대보다 크게 낮은 포스팅 금액(150만달러 추정)을 받아들고 숙고 끝에 KIA 구단의 수용 불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강정호는 구단을 통해 "지금까지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노와주신 구단과 주위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포스팅 결과가 나온 만큼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각오를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 프로야구 야수 중 최초의 도전이라는 부분에서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흥분, 그리고 많은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일본 프로야구 내야수들도 성공하지 못했던 도전인 만큼 굳은 마음과 노력으로 꼭 성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포스팅 최고응찰액을 제시한 구단명을 통보받게 된다. 이후 공식 에이전트인 옥타곤 월드와이드를 통해 30일 동안 연봉 협상을 진행한다.

넥센은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용철기자 jeony@

기성용 18일 만에 시즌 3호골

스완지시티, 헐시티에 1-0 승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의 기성용(25)이 리그 3호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기성용은 21일(한국시간) 영국 헐시티의 KC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시즌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헐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15분 선제골을 넣었다. 기성용의 골로 스완지시티는 헐시티에 1-0으로 승리했다.

선발로 출전한 기성용은 지난 3일 퀸스파크 레인저스를 상대로 넣은 시즌 2호골에 이어 18일 만에 시즌 세 번째 골을 기록했다. 시즌 1호골은 지난 8월16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넣은 바 있다. 이날 기성용의 골에는 운이 따랐다. 존조 셸비의 중거리 슛이 기성용의 몸에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골로 연결된 것이다. 또한 기성용은 이날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며 맹활약을 펼쳤다.

스완지시티는 이날의 승리로 7승4무6패에 승점 25를 기록했다. 20개 구단 가운데 6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한편 퀸스파크 레인저스의 수비수 윤석영은 웨스트브롬과의 홈 경기에 선발로 나왔지만 경기 도중 발목을 다쳐 전반 30분 클린트 힐과 교체됐다. 아시안컵 국가대표 소집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부상 정도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게 됐다.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이 21일 영국 헐시티의 KC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시즌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헐시티와의 원정 경기 전반15분에 선제골을 넣은 뒤 팀 동료 존조 셸비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퀸스파크 레인저스는 후반 41분 찰리 오스틴의 결승골에 힘입어 3-2로 승리했다. 오스틴은 이날 해트트릭도 기록했다. /장병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21일

팀	1Q	2Q	3Q	4Q	OT	합계
모비스	16	21	23	25		87
KCC	21	14	26	17		78
동부	17	23	16	20		76
삼성	24	16	18	17		75
인삼공사	26	25	12	23	5	91
오리온스	25	21	20	10	13	89
하나외환	23	16	24	22		85
KDB생명	22	16	21	26		87

프로배구 전적 21일

현대캐피탈	2	3	LIG손해보험

안전한 세상 KOSHA가 앞장섭니다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보건
교육실시

안전작업
절차 지키기

안전한 산업현장, 행복한 대한민국 4대 필수안전수칙이 만들어 갑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일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그 출발은 안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안전을 실천할 때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 4대 필수안전수칙에서 시작됩니다.

보호구 지급 착용 — 기계 · 설비 등 유해 · 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 · 착용

안전보건 교육실시 — 작업 전에 모든 작업자가 유해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안전보건 표지부착 —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위험장소 · 설비 · 작업별 안전보건표지를 부착

안전작업 절차 지키기 — 정비 · 보수 등의 비계획작업 또는 잠재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공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작업 절차 제정 및 확행을 통해 안전한 작업 유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